



걱정되는 청소년 욕 중독

신승철 (정신과 의사·시인, 블레스병원 원장)

최근 정부 조사 결과 청소년 가운데 열에 일곱 명 정도가 매일 욕을 한다는 보고다. 인터넷에선 '욕배틀'이란 게임이 인기라는 보도도 접한다.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청소년들이 욕을 해대는 일이 거의 일상사처럼 돼버린 지금이다. 사실 사춘기 무렵의 청소년들이 일정 반항심을 언행으로 드러내는 일이 굳이 잘못된 현상이라 보긴 어렵다. 널리 보아 그 역시 정신적 성장통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나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로 익명의 자유 발언이 난무해지면서, 욕 문화의 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이제 사회적 병통으로까지 봐 지는 것이다. 최근에 내가 겪은 상담 사례다. 10대에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20대 초반 여성의 술회다. "친할수록 욕을 더 잘하게 돼요. 솔직하게 보이는 거 같고요. 센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주목받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인가 봐요. 그런데 자꾸 욕을 해대는 생활 습관에 어떤 때는 그런 내 모습이 싫어요. TV 같은 거 보면, 정치인들이나 어른들도 치고박고 싸우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저는 그런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도 좀 껴있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된 사람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덜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 말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욕들을 너무 많이 해요"라고 한다. 하나 틀린 구석 없는 우리 청소년 욕 문화에 대한 나름의 풀이다. 알다시피 욕이 또래 청소년들 사이에 모방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이다. 우리 경쟁 사회의 패배자로 남기 싫은 두려운 심정 때문에, 욕이라도 잘해서 센 사람으로나마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 욕을 세계, 자주 하면, 거기에 답대한 마음이 깃들어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욕쟁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고 동질감이나 어떤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거다. 또 그 이면을 보면, 어른 세대에 대한 불신감이나 어련에 같은 투정도 얼마간 섞여 있다. 욕 중독에 걸린 당사자 역시 때로는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욕 중독자의 공통으로 진정한 친구가 적

고, 외로움이 많다는 점, 그리고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엔 의존적 성향이 높다. 현실 감각이 부족하거나 충동적이며 즉흥적인 면이 많다. 가정 내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은 원인이다. 같은 부류의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다 서로 간에 경쟁적 모방 심리를 통해 그런 습관이 배가되는 경우도 많다. 욕 습관 청소년의 마음속엔 달리 보면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서 있고 싶다는 외침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하나 오랫동안 그 습관을 떨구어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부분 청소년은 성년이 되면서부터, 본격 사회생활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런 나쁜 습관의 강도가 상당 완화되곤 한다. 그럼에도 생각 없이 욕을 자주 지속적해서 내뱉다 보면, 주변과의 관계가 서로 물고, 뜯고, 뜯기는 관계로 이어지게 됨을 뻔히 바라보게 된다. 어느 욕 중독자의 고백이다. "욕배틀 게임은요, 바보들끼리 바보의 왕을 뽑고는 속으로 키득키득 대는 거고, 서로 그걸 위로 삼는 거와 같아요." 욕을 자주 하는 청소년은 잘

난척하는 언행이나 거짓말도 은연중에 잘하게 돼 있다. 자만심 가득하고 병적 자존심을 지키려, 사실 그 속마음도 편치 않음이 분명하다. 부모 몰래 꾀를 잘 부리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일부러라도 존댓말하는 습성을 부모들이 직접 보여줘야 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학교에서도 높임말을 서로 해보는 시간도 가져봄 직하다. 요즘 어느 학교에선 그런 교육 과정을 도입해 학생들 스스로 자족감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의 보고도 있다. 언어 습관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춘기 무렵의 교육이 절실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높임말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바, 그 자존감이란 게 뭔지도 체득하게 된다. 아울러 그런 교육 과정에서 욕을 하지 않는 온화한 사람이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님을 상기시켜줄 필요도 있다. 행복 지수란 자존감이나 자족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우리가 모두 주지하는 바다.

1953년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1987년 미국 텍사스 의대 정신보건과정 연구교수, 전 서울 가정법원 가사조정 위원(1997~2001)을 역임했다.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이며 1978년 해산 박두진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하여 시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장영실 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선일보 신승철의 부부진단(1997. 3~1998. 4)'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학술서적 '연변 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에세이집 '한 정신과 의사의 노트' '남편인가 타인인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시집으로 '너무 조용하다' '개미들을 위하여', '더 없이 평화로운 한때'가 있다. 현재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서 '블레스병원'을 개원 중이다.